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1호 [루게 제24349호] 주제102(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회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회축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251군부대, 제905군부대, 제565군부대, 제1821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관하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원홍동지, 김창섭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량철성동지, 김영철동지, 조경철동지,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군인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중대군인들은 이야기와 노래 <백두산철제위인들과 초도병사들>, 저대2중주와 중창 <어머님 이야기 꽃이 필니다>, 대화시와 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막간극 <바다속의 정든 집>, 합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실화 <장군님의 마음안고 왔습니다>, 2중창과 방창 <불타는 소원>, 극중창 <사회주의 지키세>,

합창 <오성산에 발걸음소리 울린다>, 독창과 합창 <조국찬가>, 대화시 <영원한 삶의 품>, 기타병창 <정찰병의 노래>, 토막이야기 <두 병사와 분대장>, 합창 <7.27행진곡>, 시와 합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보람찬 군무생활을 이어가는 자기들의 복된 삶과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이의 두리에 정과 뜻으로 굳게 뭉쳐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땀 젖은 군복이 마를새없이 훈련장을 달리고있는 자기들의 모습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공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려는 신조,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발사된 총탄마냥 곧바로 가려는 일편단심, 사회주의조국을 총폭탄되어 옹호보위하려는 인민군인들의 결사의 각오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인민군대의 전투적기백과 영웅적기상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울리는 공연을 보면서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열병식광장에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전승의 보고를 드릴 중대군인들의 철석같은 맹세에 자기들의 불같은 마음도 합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공연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회축전에 참가하여 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품모를 힘있게 과시한 군인들이 앞으로도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보다 큰 공공을 세워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예술소조활동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춘 혁명가들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정론

아름다워라 인민의 꿈이여

10월의 대동강반에 인민의 웃음소리 울려 퍼진다. 풍치수려한 문수지구에 인민의 별궁전,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상징으로 멋들어지게 솟아오른 대규모종합물놀이장.

꿈만 같이 신비하고 가슴벅차게 황홀하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흥분을 표현할길 없애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눈부신 문화휴식터앞에서 누구나 감격으로 가슴들 떠난다.

물수물놀이장!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인민에게 심어주고 가장 절대적인 복무정신으로 그 꿈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크나큰 선물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리상, 가장 인민적인 정치가 하나하나 주옥같은 열매로 무르익어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기념비이다.

꿈의 세계이다.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수십개의 수조들은 야외와 실내에 딱 들어차있는 환상같은 세계이다.

선녀들이 저마다 전설의 날개옷을 자랑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것만 같은 울긋불긋한 야외의 미끄럼대들도 희한하지만 독특한 유리지붕을 머리에 이신 실내물놀이장 또한 황홀경의 절정이다.

동화세계에 온듯 한 즐거움속에 큼직한 《개구리》입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아이들, 아기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모상의 행복감에 싸여있는 녀성들, 폭포마냥 날아떨어지는 먹수룩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본도 좋지만 여기저기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폐강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받을수 있는 다기능화 된 종합놀이장, 먼적과 공간의 리움,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 듯한 폐강을 느끼며 고속주차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세 개의 그늘 명화화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건설자들이다. 희한한 새 문화휴식터의 주인은 누구이고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궁지높이 보여주는 류다은 화폭이었다.

누군들 없으랴. 철부지아이들로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하루공부를 마친 소년단원도, 탐구의 열함인 과학자도, 로동의 기쁨안고 찾아온 로동자도 농민도 있다.

바로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사랑찬지를 이루고 바로 여기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진정한 화회의 과도가 일고 가장 존엄높은 인민의 희열과 광만이 차고넘친다.

꿈이라하면 이런 꿈, 현실이라하면 이런 현실이 제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는 가장 훌륭한 문명의 대교향악이 연주되는것 같다고 말한다.

문명의 대교향악이라하면 어떻게 인민의 웃음합창이라하면 어떠랴.

꿈같은 리상이 성취된 인민의 이 웃음, 이 환성이야말로 생활의 오선지에 그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교향곡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알파마태, 엘도라도식이라는 대명사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쁘다. 우리 시대에 문명의 최첨단, 향유의 최첨단이 들어와있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터질것 같디.

사회주의부귀영화, 사회주의문명국. 듣기만 해도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생활속에 자리잡은것은 불과 몇년전의 일이다.

누구나 이 말들이 실어다주는 매일의 훈향을 느끼며 자신들의 미래를 만족속에 그려보면서라도 그 실체가 이렇게 빨리 생겨날 줄은 몰랐다.

인민의 꿈이 현실로 되었다. 여기 문수물놀이장에서 우리는 인민의 꿈이자 우리 원수님의 리상이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달을 충직하게 밝히려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지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마음껏 웃고 떠들며 기쁨에 넘쳐 꿈의 집을 나서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본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꿈속에서도 그러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희한한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그렇다. 그것은 상상하지도, 상상할수도 없었던 진정한 인민의 향유이다.

뜨거운 격정속에 인민은 한결같이 깨닫고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다. 인민이 바라던 모든것을 이루어줄뿐 아니라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꿈까지도 이루어주는것이 그이의 꿈이다.

사실 우리 인민의 꿈은 얼마나 소박했는가. 조각상만 지어놓고 제땅에서 배고픈 격정없이 아이들이나 마음껏 공부시키며 살려주는것이 수수천년 품어온 인민의 단순한 꿈이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조선인민은 몽골인민이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각하의 평등도에 세 사회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몽골인민의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력사에 류례없는 대전설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도처에 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서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단숨에의 정신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최첨단물자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는 조선후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전쟁이 없는 안정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총대를 결연히 차고 들고 조국을 수호해주고 운명과 존엄을 지켜준것만으로도 위대한 당에 다함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미레를 안고 살자》에도 있는것처럼 우리의 대에는 락을 보지 못해도 후대를 행복 위해 한몸 바치려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미레편이며 우리 세대의 리상과 포부였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의 리상은 달랐다. 그이의 심장속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안겨주려는 하나의 생각만이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사는 화려한 거리, 현대적인 멋쟁이들, 구경꾼과 구경꾼, 교육자들의 호화로운 살림집,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것을 더 좋고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통째로 안겨주시려는것이다.

수령의 리상만큼 인민의 꿈이 커지고 수령의 리상만큼 인민의 행복이 커진다.

우리가 임버릇처럼 위우고 언제나 하던 말, 수령복이라는 그 말을 다시금 절절하게 불러본다.

부족의 복인 수령복이 우리 인민에게 이루어준 꿈은 그 얼마나인가.

《배고餓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그분은 의외에 깃발까지 않고 착취와 억압을 받을이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있던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속박, 조상대대로의 꿈을 이루어주신 민족의 대성인, 인민의 은인이시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천연색적교림상. 다가서면 숨결마저 느껴질듯 자애로운 생명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도 인민에게 안겨주고있으셨던 물놀이장에 서서서 기쁨속에 사람들 맞이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눈물속에 그이를 웃어보는 인민의 마음을 우리 왜 도라랴.

천안고생과 부귀영화, 초강대강행군과 물놀이, 야전복과 수영복...

이것에서는 불현의 한생애로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국, 영웅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락원에서 살아보려던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시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영원히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새겨주시었으며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최첨단을 향해 나가는 자신심도 심어주시었다.

오늘 우리는 인민의 꿈이 현실로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 인민의 꿈을 모두 안으시고 인민들이 미처 바라지도 못했던 꿈까지도 이루어주시고계신다.

상상해보았는가. 텔레비전에서 눈높인 스키장들을 바라보며 저런것은 복유림같은 겨울의 나라나 있는것은 생각했던 우리 인민이 자기의 땅에 보란듯이 일떠서는 세계적인 스키장을 보고있다.

수도의 한복판에서 품어들이 온갖 재주를 부리고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나 말도 탈수 있게 되었다.

평범한 과학자와 교육자들의 손에 그렇듯 호화롭고 희한한 살림집의 열쇠가 쥐여질줄 그 누가 상상해보았는가.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아닐수 있겠나.

이 가슴벅찬 시대에 오늘은 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태어났으니 어찌 격동적인 사변이

혁명의 전세대를 처럼

하성다이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하성! 하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를 추억하게 된다.

해주-하성사이의 철길공사를 7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사람들을 놀래운 천리마시대의 청년건설자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세대는 바뀌었으나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창조하였던 기적과 혁신이 오늘도 세대를 이어가며 더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어제는 하성땅에서 철길공사소식으로 사람들을 격동시켰다면 오늘은 새해의 대형자동차다이아생산소식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무기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여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빛난다.》

우리와 만년 하성다이아공장 기장 문명전투는 하성다이아공장은 아버지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건설된 공장이라고 하면서 지난 기간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장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들려주는것이였다.

《어제는 공장에서도 세대교

제가 이루어지고 많은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하성땅에서 천리마시대의 기적을 창조한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빛나게 살려는 각오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해의 대형자동차다이아를 생산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해의 대형자동차다이아를 생산할때 대한 새로운 과업이 나왔을 때 공장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다이아형타가 없었다. 다이아형타를 수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 오일수동무는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들이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수 없소.》

이것은 지배인이 로동자들에게 한 말이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다이아형타를 제작해내는것이였다.

그때 지배인 오일수동무가 많은 걸음을 했다고 한다. 강선과 대안 등 진공의 여러곳에 있는 이름있는 련합기업소들을 다니면서 해결방도를 찾아 사색을 거듭하던 오일수동무는 공장자체의 힘으로 알루미늄우주조업을 의한 제작공정화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로동자들이 무릎을 마추는 오일수동무는 당시 큰 과업을 결사 관철하는것은 이 땅의 주인들이

우리 세대가 지닌 의무라고, 땅을 받들어 한생을 바쳐온 부모들의 넋이 깃든 공장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자고 하면서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다이아형타제작전투는 말그대로 당앞에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닌 령성과 의리를 검증받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말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수도 몰려설수도 없었다것이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닌 신념이였다.

아직까지 유색금속용해를 해본적도 없고 또 성공한다는 담도 없었지만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다이아형타제작에 달려나갔다.

《나와 같이 바보 없는 전투의 앞장에는 언제나 지배인 오일수동무가 서있었다.》

지난 시기 수십건의 가치있는 창고고안을 하여 다이아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그는 높은 과학기술적안목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인재로 인정받았다. 단판앞에 주저할새라 힘을 주면서 형태작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그의 모습에서 로동자들은 더욱 분발해나갔다.

공장에서 형태제작을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가 다 되어 직장일을 그만두었던 어제날의 기능공들도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비록 머리에는 흰머리가 내리었지만 하루빨리 시제품을 만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자 하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쏟아부을 때 로동자들은 시대앞에 지닌 세대의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였다.

문명전투와 김백련동무들이 수천리 먼길을 다녀오면서 대형자동차다이아에 대한 기술적자료를 수집하고 김백련동무를 비롯한 기술과성원들이 수십일간의 긴장한 전투를 벌여 수십장이나 되는 설계도면들을 완성해놓았을 때 형태제작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기발한 착상으로 알루미늄용해를 성과적으로 보강한 직장장 김은성동무도 고집이런 탐구와 사색을 바치며 제관공작에 크게 기여한 우성일, 리원근동무들, 정명만을 개조하여 중량소제공을 보란듯이 해제한 권순철동무를 비롯한 가공작업반의 로동자들, 성의있는 후방사업으로 로동자들을 기쁘게 해준 공장일군들...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처럼 오늘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한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다이아형타제작을 기어이 해내고야말았다.

단판앞으로 31이나 되는 알루미늄우주물품을 부어내고

은 공장의 판심속에 대형자동차다이아시제품을 생산해냈을 때 서로 부둥켜안고 환성을 올리는 이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이러한 과정에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그 어떤 다이아형타제작도 척척 해제될수 있는 창조적 명수들로 자라났으며 대형자동차다이아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공장의 자랑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공장주내의 수천㎡의 면적에 잔디를 심었으며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어 공장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구내에 꾸려진 양어장과 태양열온실도 그렇고 공장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자기 손으로 기어올린 행복을 안아오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지혜와 열정을 한눈에 엿볼수 있었다.

지배인 오일수동무는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던 막혔던 길도 환히 열리고 하면서 《마식령속도》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기들도 한몫 단단히 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다.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빛나게 살리라!

이것이 하성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고향땅에 바쳐가는 사랑과 열정

상원군 흑우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상원군 흑우농장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리소제지 중심에 정중히 건립한 영성탑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농장사무실건물과 상점,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 마을앞에 펼쳐진 드넓은 포전들...

자기 사는 고향땅을 아깝다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러가는 주인들을 만나고싶은 충동이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처지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도록 노력해 나가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흘리고 자기가 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만년 농장일군 김승남동무는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아버지수령님께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밝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농장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것이였다.

농사를 잘 짓지만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그날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헌신하였으며 해마다 농촌문화주택들도 자체의 힘으로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들이 받들어 고향땅에 애국의 땅을 바쳐온 흑우농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고 올해농사에도 신심2높이 떨쳐나갔다.

관리위원장 리동선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을 안고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열정을 바치였다. 김덕일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부터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작전과 기획을 짜고 있었다.

농사를 잘 짓지만 거름이 많이 야 한다고, 거름 한줌이 잘 싹나고 하면서 수천의 거름 생산과 실이내기를 다그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의 열정과 헌신의 자욱은 포전들마다에 그늘로 어리었다.

제3작업반 농업근로자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는가. 땅을 갈구는데 해묵은 감자가 좋고 하얀색의 감자는 감우리의 추후도 이만큼까지 않고 강바닥과기를 진행하여 수십의 감장을 포전에 실어냈다.

대중체육과 군예문화활동에서는 물론 한해농사에서조차 농사 양보하지 않으려는 열의들로 하여 사회주의경쟁은 더욱

치밀해졌다.

풀베기전투에 기세를 올리며 맨 앞장에서 헌신을 일으킨 제2작업반원들.

그들은 작업휴식시간도 아껴가며 풀베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가 흘린 땀이 그대로 이 땅을 살지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한다고, 거름더미는 쌓여나가고 하면서 날마다 남다른 새벽이슬을 차고 풀판으로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의 손에서는 불이 이는 듯 하였다.

어제 이들뿐이라.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안고 하루 버베기과제를 200% 넘쳐 수행하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린 조광명동무와 같은 일부의 중요성을 심각하고 트랙터의 동음을 높이 울린 김덕룡동무, 자기 사는 고향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러가기 위하여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조해숙, 김광옥 동무들...

그 누구도 할것없이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고향땅을 더욱 아깝다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러가려는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과 창조적 열정이 차남쳐였다.

바로 이런 약동하는 새 힘과 열정으로 이들은 벼베기도 최적이게 남기지 외달라 해제했다.

남달릴기전투장에서 울리는 《조국찬가》의 노래소리가 풍요로운 가을바람에 실리어 은근하게 들려왔다.

노래를 들느니라 비약하며 내달리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될 흑우농장의 밝은 매일이 안겨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와 시, 군소제지들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할수 있도록 잘 꾸려야 합니다.》

강계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있다.

지난 6월 강계시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소재지 강계시 인민의 행보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잘 꾸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어 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시경성성을 비롯한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이 도소재지인 강계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뜨겁게 크나큰 도의 일군들과 강계시의 근로자들, 주민들이 도소재지를 더 잘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자 강 도 에 서

곳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공원들과 휴식터들,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았다.

시에서는 강계청년공원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건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에서는 배수시설을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의 외벽미장공사를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색깔고은 외장재바르기를 진행하면서 강계강야외수영장, 강계물놀이장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급기관 일군들은 군민건설자들과 합심하여 시내중심도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막-홍주도로기술재공사에 동원된 만포시, 초산, 통림, 전천

도시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우리 나라 정학진선수 제28차 세계군대남자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이전의 수도 테헤란 59초만에 7:0으로 이겼다.

28차 세계군대남자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는 제치있는 다리리 나라 선수들이 계속 잡기를 비롯한 특기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잘 살려 이관선수를 이겼다.

자유형레슬링 55kg급 경기에서 출전한 정학진 선수는 예선에서 한편 양촌성선수는 이라크 선수를 1회전 자유형레슬링 66kg급 1분 30초만에 어깨달 경기에서 은메달을 받기로, 준결승에서 까자 이겼다.

호스만 선수를 1회전 경기는 계속된다.

우리 나라 정학진선수 제28차 세계군대남자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이전의 수도 테헤란 59초만에 7:0으로 이겼다.

28차 세계군대남자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는 제치있는 다리리 나라 선수들이 계속 잡기를 비롯한 특기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잘 살려 이관선수를 이겼다.

자유형레슬링 55kg급 경기에서 출전한 정학진 선수는 예선에서 한편 양촌성선수는 이라크 선수를 1회전 자유형레슬링 66kg급 1분 30초만에 어깨달 경기에서 은메달을 받기로, 준결승에서 까자 이겼다.

호스만 선수를 1회전 경기는 계속된다.

우리 나라 정학진선수 제28차 세계군대남자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이전의 수도 테헤란 59초만에 7:0으로 이겼다.

28차 세계군대남자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는 제치있는 다리리 나라 선수들이 계속 잡기를 비롯한 특기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잘 살려 이관선수를 이겼다.

자유형레슬링 55kg급 경기에서 출전한 정학진 선수는 예선에서 한편 양촌성선수는 이라크 선수를 1회전 자유형레슬링 66kg급 1분 30초만에 어깨달 경기에서 은메달을 받기로, 준결승에서 까자 이겼다.

호스만 선수를 1회전 경기는 계속된다.

아름다운 우리 생활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아름다운 우리 생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교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어온 편지에서 의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박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차승진동무는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안주시 덕성동진로소의 의사, 간호원들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소장 조동욱동무를 비롯한 덕성진로소 의료원들은 영예군인인 차승진동무에 대한 치료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치료전투를 짜고들어 그가 다시 대지를 밟을수 있게 해주었으며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이르기까지 마음쓰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왔다.

해주시 양사동에서 살고있는 리순희로인은 편지에서 90나이가 되었지만 건강할 몸으로 활력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된것은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봐주고있는 해주시장 책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결속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어진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자경기 가 전무 끝났다.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2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에서 매 팀들은 평시에 편마한 제치있는 기술과 높은 집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방어진을 허물면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4.25일과 열기도립, 압록강원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는 각각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박성일 부위원장등 단장으로 하는 조선

평양역에서 김원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등 심포강주조 축하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미중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원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등 심포강주조 축하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미중하였다.

선천광산 월천쟁광부들

선천광산 월천쟁광부들

광물증산투쟁에 떨쳐나섰다

광물증산투쟁에 떨쳐나섰다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새겨안고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종업원들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새겨안고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종업원들

개척자의 긍지

개척자의 긍지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새겨안고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종업원들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새겨안고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종업원들

아름다운 우리 생활

아름다운 우리 생활

파쇼독재부활책동은 력사의 흐름에 도전하는 반동공세

정당활동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치테러행위

현 남조선피뢰정권은 《유신》 독재에 뿌리를 두고있다. 집권전부터 최악의 과거를 공공연히 찬미해온 보수세력은 집권후 《유신》 독재부활에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이로 하여 과거의 물서리치는 독재체제와 파쇼악몽들이 살아살아나 남조선의 엄혹한 현실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유신》 독재자의 본래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존엄과 분노를 무릅쓰고 유린하면서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억압하는 피뢰보수세당의 망동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파쇼독재는 인민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기수으로 밀려난 낡은 세력의 령정적인 도구이다. 피뢰보수세당이 독압 통치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그것은 낡은 세력의 멸망이 가까와오고있는 것을 반증해줄뿐이다. 낡은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어김없는 법칙이다.

파쇼독재의 부활은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력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과거시대를 뒤살리려는 낡은 세력의 발악적인 무류미이다.

민주화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숙망이고 결박한 요구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4. 19의 용사들과 광주의 항쟁렬사들이 흘린 피는 민주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남조선인민

들의 지향은 현 피뢰집권세력에 의해 어지럽혀져 있다. 보수세당은 력사의 흐름에 파쇼독재의 부활로 도전해나 서고있다. 피뢰당국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마자 광범한 사회여론을 무시하면서 《유신》의 퇴폐물과 지난 시기 총칼폭압과 동족대결로 악명떨친 파쇼 본자들을 요구에 들어앉혔다.

피뢰보수세당은 지금은 《50년대 령정시기보다 안보가 더 위협적이다.》고 피뢰를 돌리면서 《법외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파쇼악법들을 조작하여 진보단체들을 비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신》 독재의 과거를 방불케 하면서는 파쇼독재의 시대가 재현되고있다. 진보정치적 실현과 민주주의,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야당인사들이 《세관 음모》를 꾸미었다는 죄로 체포구속되고 법외단체로 몰려온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이 《총독세력 척결》소동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지어 집권세력의 반민주적악행에 분노하여 초법집회에 나선 시민들까지 무자비한 탄압을 당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유신》 독재의 피비린 공포정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외신들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두고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선공의 재현》으로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유신》 독재부활책동은 인민의 자주적권리를 야만적으로 짓밟고 어지럽혀져 있다. 남조선의 반민주적악행에 분노하여 초법집회에 나선 시민들까지 무자비한 탄압을 당하고있다. 이것은 과거 《유신》 독재의 피비린 공포정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외신들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두고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선공의 재현》으로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로 하여 인류가 첨단문명을 지향하는 21세기의 오늘에도 남조선은 세계 최후의 인연불보지, 인권의 폐허로 더더욱 전락되고있다. 최근 피뢰들이 생중징역을 빼앗은 밀양총탄검열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현지주민들을 경찰무리를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살

을 찾아 립진강을 헤엄쳐 건너가던 무고한 사람을 수백발의 총탄을 퍼부어 처참히 학살한것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물론 생명까지도 눈엣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빼앗은 보수세당의 파쇼적이며 반인륜적인 정체를 뚜렷이 립증해 주고있다.

《유신》 독재부활책동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피뢰집권세력은 파쇼독재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력대로 폭력과 압제에 매달린 독재자들의 운명은 비참하다. 《유신》 독재자도 자기 심부의 총탄에 맞아 사살되고 말았다.

남조선의 엄혹한 현실은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파쇼독재를 반대하는 결연한 투쟁에 부추기고있다. 파쇼독재 부활책동은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반역사적망동인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삶과 운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지주, 민주, 통일, 새 아침을 단정해 력사적과파가 남조선인민들의 두 어깨에 실려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역세력의 파쇼독재앞서 절대로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파쇼독재를 끝장내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의지와 노력, 투쟁에 달려있다.

은 정철

우 간 다 단 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규탄

10. 4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18일 밤아르카를동 우간다진공집행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간주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분렬과 대결, 긴장이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고

전교조파살소치에 항의하여 초불투쟁

남조선의 전교조파살소치에 항의하여 24일 피뢰교육부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날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성을 말살하는 소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민중의 목소리를 기를 기 울이지 않는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근해가 전교조에 로조가 아

사회적저지개선을 요구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민주로총소속 공공운수로로 각양에서 19일 서울의 보신기아말로 《연립정부》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울바른 교육을 위해 투쟁하다 가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들을 조합에서 배제해버리는것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정보원, 국방부까지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생겨난 현 《정권》이아말로 《연립정부》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력사외곡을 꺾하는 교과서수정놀음을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2일 력사교과서수정놀음을 비난하는 사실을 실었다.

21일 피뢰교육부는 8종의 고등학교 력사교과서에서 829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것을 출판사들에 지시하였다.

이 교과서들도 말하면 지난 8월 피뢰국사편찬위원회가 결정통과시킴으로서 친일행위와 리승만, 박정희의 독재로 물결치는 미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뿐만아니라 사실자료들이 틀리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대목들이 수백개나 되어 교과서로서 수준미달이라는 전문가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이러한 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결정에서 통과시킨

위협천만한 《미싸일방어체계》 구축책동

미싸일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실험수단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미 미국의 《THAAD》 미싸일생산회사판 계약자들이 올해에 남조선에 몇차례나 날아들어 피뢰공군 및 기타 인물들과 비공개회의를 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이것은 해충방어미싸일들로만 구성된 남조선형 《미싸일방어체계》를 내오겠다는 피뢰들의 주장과 거꾸로 피뢰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상건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하기 위해 로골적으로 움직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피뢰들이 이 군사장비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킬 체인》과 함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에 그들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위한것이다. 이 전쟁장비에 핵력할것을 강요하였다. 그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뢰호전파들이 미국의 미싸일요격수

미싸일방어체계 구축책동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하는것은 그 누구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편입되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북침선제공격도 서슴지 않으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기도의 발로 있다. 엄밀한 피뢰집권자가 《대북억제책》에 대해 운운하며 선제공격체제인 《킬 체인》과 《미싸일방위체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떠벌리는것은 남조선호전파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야합적인 핵선제공격에 나서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피뢰당이 제 4 5차 남조선 미국 《년례안보협의회》에서 《군사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상건과 최종합의한 《맞춤형억제전략》은 《미싸일방위체계》에 기초한 북침핵선제공격을 위한것이다. 이 전쟁장비에 핵력할것을 강요하였다. 그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유럽방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음모에 깔린 기도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달리는 피뢰당국의 정세가 최근 벌어지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음모를 통해 다시금 드러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피뢰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조선반도의 《안보상황》을 거들며 미국이 2015년 12월 28일에 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제언기해줄것을 요청하고 미국은 이에 리해응을 요청하면서 전환시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떠들던 미국과 그것을 《국경파괴》로까지 조야박았던 피뢰들이 무엇때문에 또다시 연기음모를 벌여놓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음모에는 피뢰들을 북침전쟁의 하수인으로, 남조선을 새로운 국방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교활한 타산과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야당을 실현해보려는 피뢰당당의 흥심이 깔려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피뢰들의 수레를 보며 그들을 대조선침략책수행의 돌격대로 더욱 효과적으로 써먹을 궁리를 해왔다. 그런것으로 하여 피뢰당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제언기를 애걸할 때 흥미가 있는것이 예정대로 추진하여도 《동맹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

정세완화국면을 파괴한 장본인 남조선신문 《자주민보》에 실린 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얼마전에 미국과 피뢰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국면이 사라지고 긴장이 강화되어 핵전쟁위험이 고조되고있다고 폭로하는 《2차 조선반도전쟁위기가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조선반도전쟁위기가 시작되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5월부러 급격히 풀리면서 전쟁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사라졌다. 개성공급지구도 정상화되고 조미사이에 접촉이 계속되면서 모든면이 예는 확고히 대외국면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10월에 들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면서 전쟁위기가 다시 시작된 징후들이 나타나고있다.

우선 그것은 남조선, 미국, 일본연합해상훈련에서 나타났다. 당국은 《년례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북의 반응은 달랐다. 북은 《조선반도의 대화평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일본을 적극 끌어들이야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공식지지하고 남조선미국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게 하는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대결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군사적충돌위기에 대 발상할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반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던 지금은 그만큼 커진 상태이다. 조만간 빨간불로 바뀔수 있고 그후에도 미국이 제동기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합동훈련까지 하면서 북을 자극하고있을까?

일단 미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하나의 요인이었다. 미국이 경제위기에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결국은 국가부도라는 사태를 피할수 없다. 미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고말았다. 전세계면전에서 망신을 당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만회하려 하고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경제위기의 출로를 마련할고민도 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미국은 이 계획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음모에 깔린 기도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달리는 피뢰당국의 정세가 최근 벌어지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음모를 통해 다시금 드러나고있다.

정세완화국면을 파괴한 장본인 남조선신문 《자주민보》에 실린 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얼마전에 미국과 피뢰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국면이 사라지고 긴장이 강화되어 핵전쟁위험이 고조되고있다고 폭로하는 《2차 조선반도전쟁위기가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을 적극 끌어들이야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공식지지하고 남조선미국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게 하는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대결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군사적충돌위기에 대 발상할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반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던 지금은 그만큼 커진 상태이다. 조만간 빨간불로 바뀔수 있고 그후에도 미국이 제동기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날수 있다.

